

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집중호우 대비 농업시설 안전 점검 강화

✎ 황진호 기자 | ⓒ 승인 2026.07.22 18:58

배수장·저수지 등 주요 시설 점검...침수 피해 예방 대응체계 마련
수중펌프·제진기 작동 확인...기상이변 대응 용수관리 체계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가 관계자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내 배수장 시설을 점검하며 수중펌프와 제진기 등 주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용수관리 강화에 나섰다. 배수장과 배수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해 농경지 침수와 농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과 용수관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발생 시 배수시설이 즉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문경지사는 배수장의 핵심 설비인 수중펌프와 제진기 등 주요 장비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용과 긴급 대처 요령을 재점검했다.

또한 저수지 수위와 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병탁 문경지사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시설물 점검과 수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